HYUNDAI

COVER STORY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키우는 모성, 빛.
세상의 처음을 열어주고 모든 예술가들에게
찬란한 영감을 선사해 준 빛처럼
<현대모터>가 여러분의 2018년을
보다 따뜻하고 밝게 채워나가겠습니다.

HYUNDAI MOTOR
2018 JAN. FEB vol.339

HYUNDAI MOTOR

2018
JAN / FEB
vol. 339



ISSN 2384-4531

Light, 세상과 예술의 어머니

CONTENTS

2018. JAN / FEB
VOL. 339

04
LOUNGE
텅 빈 공간을
따뜻한 위로로 채우다


James Turrell's "Aten Reign" ©Claire Voon

06
OLDIES BUT GOODIES
전통 한지 위에
수묵의 빛으로 그린 사진



12
DISCOVER
빛이 빚어내는 천상의 풍경

16
KNOCK YOUR MIND
빛과 어둠 사이를 여행하는 당신을 위해

20
LOCAL PREMIUM
아말피에서 온 편지

24
INVITATION
여백과 공간을 채우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



38
ROAD TRIP
잠들지 않는 도시, 경주
은은한 불빛들 사이를 달리다



58
CAR TALK
39세 싱글남의 두 번째 차, 해답은?
제네시스 G70 vs 2018 맥스크루즈



30
STORYTELLING
아폴론에서 대별왕까지
세계의 신화에서 '빛의 신'을 만나다

34
MASTERPIECE
조명 디자인의 새로운 시대를 연
혁신과 사랑

46
SHINING STAR
신나는 일상을 공유하다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신남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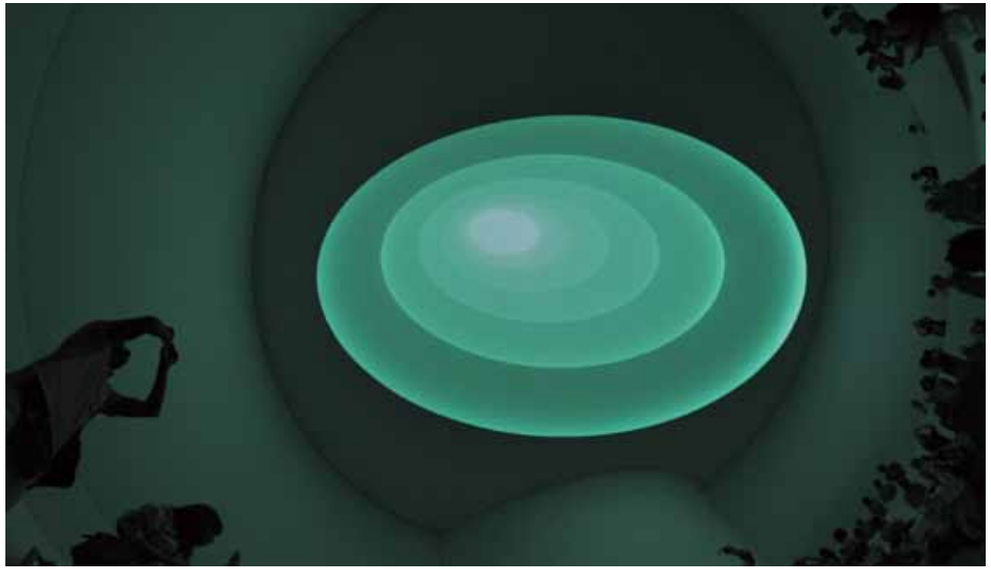
54
BRIEFING
인상을 좌우하는 핵심
헤드라이트 디자인과 성능

64
PRESENTATION
소통, 상생, 공유
현대자동차 고객과 더욱 가까워지다

66
DASHBOARD
-더 뉴THE NEW 그랜드 스타렉스 출시
-'현대 바디케어 서비스' 실시

현대자동차 교양정보지
격월간 현대모터
비매품
발행일
2018년 1월 8일·통권 339호
신고번호 서초마00085
신고일자 2016년 8월 26일
발행인
이원희
편집인
박진호
기획·편집·디자인·사진
아이퍼블릭스
TEL. 02-3446-6362
인쇄인
이근우, 광명특수인쇄㈜
TEL. 031-948-9300
발행처
현대자동차㈜ 홍보실 문화홍보팀
나형진 TEL 02-3464-2929
e-mail nhjok@hyundai.com
홈페이지 www.hyundai.com

“빛은 인간에게 있어 생명의 줄기다.”



James Turrell’s “Aten Reign” ©Claire Voon

텅 빈 공간을 따뜻한 위로로 채우다

빛의 예술가 제임스 터렐

“빛은 인간에게 있어 생명의 줄기다.” 미국의 설치미술가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말이다. 자신의 말을 증명하듯 제임스 터렐은 누구보다 작품의 수단과 내용 모두 ‘빛’ 그 자체에 주목했다. 특히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 전시된 제임스 터렐의 <Aten Reign>은 인공 조명과 자연광이 번갈아 공간을 채우는 형식으로 연출되며 사물을 배제하고 형태가 없는 빛을 시각예술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Aten Reign>을 비롯한 제임스 터렐의 대부분의 작품은 빛을 통해 명상과 사색의 시간을 선물한다. 빛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관람객들은 어느새 자신 내면의 빛과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빛을 통해 평화를 소망한다. 또한 빛과 가까운 곳에 희망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연초가 되면 많은 이들이 태양의 빛을 관람하기 위해 해돋이 명소로 모이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제임스 터렐의 <Aten Reign>과 새해 일출은 ‘빛’이라는 공통된 속성으로 묶여 우리에게 변함없이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선사한다. 곳곳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산뜻한 기분으로 빛과 함께하는 짧은 여행을 시작하려 한다. 깊은 어둠은 지나고 찬란한 빛이 우리를 비춘다.



전통 한지 위에 수묵의 빛으로 그린 사진

편리함이 미덕인 시대에 불편하고 오래된 가치에 주목하는 곳이 있다. 서울 종로구 계동에 위치한 '물나무 사진관'이 그렇다. 빛을 이용해 은으로 상을 빚어내는 물나무 사진관에서 사람들은 아날로그 시절의 낭만을 찾는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따뜻한 감성을 깨워주는 특별한 곳, 물나무 사진관 김현식 대표에게 낡은 것을 지켜나가는 뚝심과 오래된 것의 가치에 대해 들어본다.

글. 권지혜(편집실) **사진.** 물나무 사진관

흑백 사진에 순간을 기록하다

한 번의 기회가 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쉬이 지우고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는 디지털 카메라 대신 낡고 투박한 카메라 앞에 사람들이 서고 있다. 한 번의 기회에 어떤 모습을 담을지 고민 끝에 그저 함께 온 이와 나란히 서거나 앉아 손을 잡을 뿐이다. 흔하디흔한 수정의 과정을 거칠 수도 없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남기는 것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아날로그에 대한 기억이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빛으로 현재를 기록하기 위해서다.

서울 종로구 계동 골목에 자리 잡은 물나무 사진관에는 주말이면 흑백 즉석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선다. 이미 단종된 흑백 필름을 전 세계에서 수소문 끝에 구하는 탓에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것은 당연지사. 그럼에도 주말에는 물나무 사진관 앞에 흑백 즉석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림을 감수하는 이들이 줄을 서 있다. 비단 즉석사진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물나무 사진관은 전통 한지에도 빛으로 사람들의 현재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과 아날로그를 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물나무 사진관의 김현식 대표는 '물성과 기운'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상 위에서, 머리맡에서 사람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며 존재하는 한 장의 사진은 분명히 컴퓨터 속 변하지 않는 수십, 수백 장의 디지털 사진과는 다른 의미와 가치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아주 비싼 호텔에 가서 유명한 셰프의 솜씨로 차려낸 비싼 밥을 먹는 것보다 어린 시절 골목에서 신나게 뛰어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해주시던 뜨끈한 된장찌개와 쌀밥 그리고 김치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느끼게 하죠. 이렇게 정량화되지 않는 어떤 기운도 아날로그라고 생각합니다. 아



01


02


03

날로그의 가치는 사람과 시간의 궤를 함께할 수 있다는 데 있죠."

흑백 즉석사진을 '구식 프로젝트'라 이름 붙인 김현식 대표. 구식이라는 단어 뒤에 낭만이라는 글자가 서서히 오버랩된다. 김현식 대표는 일간지 사진으로 시작해 잡지 사진 등을 거치며 사진에 대한 잔뼈가 굵은 사진가였다. 상업 사진을 하던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다름 아닌 사진 한 장이다.

"<수카라>라는 잡지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비빔밥을 소개하는 칼럼인데 야채 고명이 올라가고 정돈된 모양의 비빔밥 사진을 첫 페이지에 실을 줄 알았죠. 비빔밥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데 <수카라>는 빨갛게 비빈 비빔밥 사진을 싣더군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 빨갛게 비빈 비빔밥 사진을 보고 저는 제가 우리 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우리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게 되고, 사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 그 끝에 물나무 사진관이 있었습니다."

김현식 대표는 사진 한 장이 우리 것에 주목하고 물나무 사진관을 열게 된 계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쉽게 소비되고 잊혀지는 사진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향한 열망이 있었기에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을 터. 우리 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생각한 그는 그렇게 계동에 자리를 잡고 물나무 사진관 안팎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의 맥을 지키다

'전신사조傳神寫照'. 인물의 외형 묘사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인물의 고매한 인격과 정신까지 나타내야 한다는 우리의 전통적 초상화론이다. 물나무 사진관은 '전신사조'라는 우리의 전통적 가치 안에서 한국적 초상사진에 대한 접근과 구현을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오늘을 기록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전통은 촌스럽고 낡은 것이라 판단하기 쉽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와 정신이 스며 있다. 김현식 대표가 전신사조 기법을 채용하고 전통 한지인 고려지를 사용하며 전국 각지의 장인들이 만든 생활공예품과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공간인 근대화상회 프로젝트 등을 펼쳐나가는 이유는 우리 고유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강한 사명감 때문이다. 기술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김현식 대표는 자신의 행보를 '맥'이라는 한 글자로 설명한다.

"제가 사진을 배우던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의 관점과 기준으로 사진의 미학을 판단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유입된 사진기술은 우리의 전통과 단절된 채 발전해왔습니다. 우리의 맥을 지키

01
'전신사조'는 물나무 사진관이 사진 속에서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전통의 가치다.

02
물나무 사진관의 필름 사진은 16단계의 수작업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03
계동의 고즈넉한 풍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물나무 사진관



04



05



06

며 우리 것을 이용해 전통적인 사진을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한지는 장지방, 원주한지 등의 수제 한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지는 보존성이 뛰어나 천년한지千年韓紙라고도 불리고 백 번의 정성이 들어간다 하여 백지百紙라고도 불립니다. 한지에 피그먼트 프린트를 해 수백 년간 변함없는 사진을 만들어내고 있죠. 손이 많이 가고 가격도 저렴하지 않지만 사진을 통해 우리 것을 지켜나가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날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래되고 낡고 불편한 것들이 주목받고 있다. 편리함 대신 굳이 불편함을 선택하는 이들 역시 늘어나고 있다. 낡은 것들이 주목받는 것은 현재에서 채워지지 않는 따뜻함과 본질에 대한 회귀 본능 때문은 아닐까.

잊고 있던 나를 발견하다

물나무 사진관을 이야기할 때 자화상 프로젝트를 빼놓을 수 없다. 자화상 촬영은 스스로가 셔터를 눌러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신의 모습을 빛을 통해 남길 수 있도록 카메라를 준비하고 김현식 대표를 비롯한 사진가들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간다. 오롯이 혼자 남은 시간. 사람들은 전신 거울에 마주한 자신을 바라본다. 카메라 셔터를 누를 수 있는 리모컨이 손 안에 있다. 어떤 모습을 남길 것인가. 포즈도, 표정도, 눈빛도, 마음도 오로지 손가락 하나로, 한순간으로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내가 되어 기록으로 남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하고 울음을 터뜨린다. 나를 온전하게 마주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3년 전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시절 작업물을 보다 문득 머리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잊고 있던 자화상이 떠올랐죠. 자신을 마주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야말로 한시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화상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진행한 분들이 남겨주시는 감상을 볼 때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그 이상으로 자화상 프로젝트의 목적을 잘 이해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여름 진행된 전시회 <셀피>전은 올해 초 창원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 '근대화상회' 역시 재정비를 하고 있다. 국내외를 오가며 진행하고 있는 '이동식 사진관'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외면하고 누군가는 잊어버리고 마는 것에 대해 꾸준히 시선을 맞추는 김현식 대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보다는 함께 낡아가는 사진을 이야기하는 김현식 대표의 뚝심에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그의 발자취에는 전통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기에 김현식 대표가 사진으로 전할 이야기는 아직 무궁하다.

04
오래된 양은냄비 공장을 개조한 물나무 사진관에는 투박한 멋스러움이 가득하다.

05
'오늘의 나'를 기록하는 자화상 프로젝트는 스스로 버튼을 눌러 사진을 촬영한다.

06
물나무 사진관은 전통 한지에 찰나의 순간을 기록한다.

빛이 빚어내는 천상의 풍경

빛은 때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시간과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얼핏 평범해 보이는 장소도 아름다운 빛을 덧입으면 그 어떤 명화 못지않은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풍경을 연출한다. 우리에게 힐링과 휴식을 선사할 자연과 원시의 빛을 만끽할 수 있는 국내외 핫 스폿을 소개한다.

글. 신병철(편집실)



©Alex Conu_노르웨이관광청

노르웨이 로포텐 제도

자연이 그려내는 환상적인 빛의 춤

노르웨이 북부지역 사람들에게 오로라는 삶의 일부이자 신화의 원천이다. '북극해에 총총히 박힌 6개의 별'이라고도 불리는 노르웨이 로포텐 제도의 겨울밤에는 칠흑 같은 밤바다에 오로라가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이 연출된다. 더불어 생업을 위해 환하게 불 밝힌 항구의 절경은 일상의 위대함을 일깨우는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다.



뉴질랜드 와이토모 동굴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지는 지하궁전

뉴질랜드의 와이토모 동굴은 '반딧불이 동굴'로도 불리며 100년이 넘도록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지하 강물을 따라 보트를 타고 들어가 랜턴을 끄면 동굴은 눈앞에 은하수가 펼쳐지는 지하궁전으로 변한다.
옥색 조명을 달아놓은 듯 수천, 수만 마리의 반딧불이 유충이 발하는 미광은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Shaun Jeffers



지리산 천왕봉

운해를 뚫고 솟아오르는 장엄한 일출

지리산 10경 중 단연 으뜸으로 손꼽히는 천왕봉 일출. 우뚝 솟은 봉우리들을 넘실대며 타고 넘는 운해를 뚫고
솟아오르는 일출의 빛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말처럼
쉬이 만날 수는 없지만, 운 좋게 일출을 맞는다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다.

©산청군청

빛과 어둠 사이를 여행하는 당신을 위해

빛은 전 세계 내로라하는 예술가들에게 어떤 영감을 선사할까. 이 질문에 답할 네 편의 작품이 있다. 영화, 뮤지컬, 전시, 소설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빛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때로는 화려하고 때로는 차분하게 내려앉은 빛의 축제가 눈앞에서, 상상 속에서 환하게 빛난다. 빛이 주제이자 소재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네 작품을 소개한다.

글. 박사(북칼럼니스트)

그림도 영화도 사진도 빛과 그림자가 거의 전부다. 빛은 사물의 표면을 어루만지며 우리 눈에 그 아름다움을 전해준다. 그러나 어떤 작가는 단순히 빛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만족하지 않는다. 줄리안 오피가 그렇다. 조각과 회화의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의 작품은 빛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일상 속 사람들이 그의 작품의 소재가 된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이모젠>을 보면 줄리안 오피 작품의 특징이 보인다. 또한 걸어가는 사람의 이미지를 LED 패널로 만든 작품은 빛을 작품의 한 요소로 품는다. 대형광고판을 활용한 그의 작품은 스스로 빛난다. 서울역 맞은편 서울스퀘어 빌딩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로 상영되는 작품 <걷는 사람들>에는 빛으로 출렁거리는 그의 작품의 특징이 담겨 있다.

모든 화가는 자신만의 빛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빛을 잘 그린 화가를 꼽으라면 빛의 변화에 따른 색채에 집중했던 후기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고흐의 그림에서 유명한 것은 <별이 빛나는 밤에>의 굽이치고 요동치며 달과 별을 휘감고 흐르는 빛으로 가득 찬 밤하늘이지만 고흐의 별칭은 '태양의 화가'이다. 그는 거칠지만 정확한 붓터치로 빛을 잡아낸다. 그가 그린 해바라기를 보라. 태양처럼 불타오르는 꽃잎들은 태양 그 자체다. 해바라기가 해가 되는 마법. 그의 그림 속의 모든 사물은 빛 속에 놓여 있고, 어둠 속에 잠겨 있다. 그는 태양처럼 강렬한 빛도 잘 그려냈지만 <감자 먹는 사람들>을 둘러싼 어둠 속에 빛나는 램프의 불빛을 보면 섬세한 빛을 그려내는 데도 일가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그림만큼이나 유명한 것은 그의 광기 어린 삶과 그를 헌신적으로 보살폈던 동생



줄리안 오피 <이모젠>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영화 <환상의 빛>

테오 이야기다. 그들의 깊은 우애는 고흐의 그림에 한줄기 빛을 던져준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테오의 시각에서 본 고흐와 고흐의 그림 이야기다. 고흐가 세상을 등지고 6개월 뒤 테오는 형을 위한 유작전을 열기 위해 그와 주고받았던 편지와 그림을 정리하며 기억을 펼쳐 보인다. 뮤지컬인 만큼 부드러운 감성의 음악도 인상적이지만 무대 자체를 거대한 캔버스 삼아 고흐의 명화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압권이다. 미술관에서 고흐의 작품을 본 적 없는 이들이라도 친숙하게 접해왔던 그림들이 눈앞에 흐르듯 펼쳐진다. 말 그대로, 고흐의 눈에 비친 빛의 향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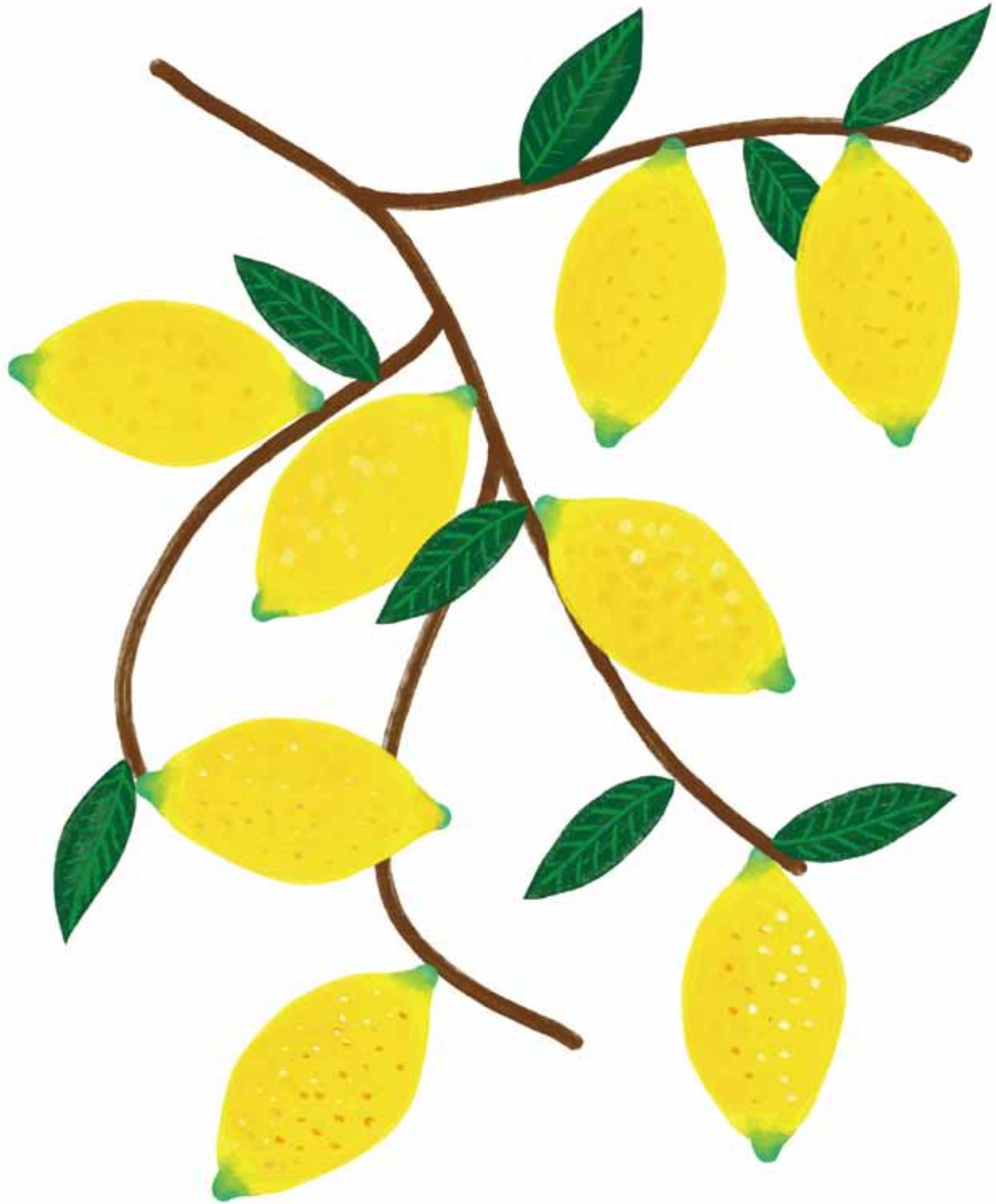


책 <빛 혹은 그림자>

빛은 그림과 영화와 사진을 넘어 사방에 스며든다. '빛을 그린 사실주의 화가'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을 보고 한 편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건 호퍼의 빛을 난롯불처럼 쬔 탓이다. 로런스 블록이 엮은 <빛 혹은 그림자>의 부제는 '호퍼의 그림에서 탄생한 빛과 어둠의 이야기'다.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듯 무심하지만 어떤 인상적인 순간에 정지 버튼을 누르고 얇게 저며낸 듯한 호퍼의 그림에, 적지 않은 작가들이 호응했다. 스티븐 킹, 조이스 캐럴 오츠, 마이클 코널리…무려 열일곱 명이다. 로런스 블록은 '그토록 결출한 작가 군단이 왜 이 책의 기획에 동참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모두가 나의 친구들이긴 하지만, 우정 때문은 아니었다. 다른 할 일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내가 그들에게 줄 푼돈이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에드워드 호퍼였다. 그들 모두 그의 작품을 사랑했고 그의 작품에 화답했다. 지극히 작가다운 방식으로."

지극히 작가다운 방식으로 해석한 빛은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 <환상의 빛>에서도 볼 수 있다. 주인공 유미코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이 거의 자살과 같은 죽음을 맞은 후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괴로워한다. 괴로워하는 유미코에게 새 남편은 말한다. 환상의 빛이 있다고. 죽은 사람들은 가끔 그 환상의 빛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다고. 감독은 빛을 장면 장면마다 사용한다. 빛이 쏟아지는 밖, 어두운 실내, 어두운 터널, 터널 밖의 밝은 빛. 사람들은 빛을 따라 떠나기도 하고, 빛 속에 머물기도 하고, 빛을 향해 얼굴을 돌리기도 한다. 삶은 그런 것이다. 저마다의 빛을 품고 있는 것.

빛과 그림자는 예술작품이 아니어도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예술작품 속의 빛은 이미 한 번 해석된 빛이다. 그렇게 해석된 빛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다른 방법을 알려준다.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만의 빛을 그려보고 써보라. 세상에 빛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아말피에서 온 편지

이탈리아 아말피의 레몬은 지중해의 풍부한 햇살과 바닷바람이 향과 맛을 돋우고
비타민 C가 풍부하고 수분 함유량도 높다. 아말피의 햇살이 키운 보석,
세계 최고의 레몬으로 손꼽히는 아말피 레몬의 매력과 도시를 가득 채운
레몬 향의 그 생생한 이야기에 주목해본다.

글. 젠나로 다마토GENNARO D'AMATO **일러스트레이션.** 이철민

차오, 아마치 코레아니!(안녕, 한국 친구들!)

아말피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탈리아 남부 아말피 해안가에서 살고 있는 젠나로라고 해요. 아말피 해안가 마을 체타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지요. 오늘 한국에 있는 여러분에게 아말피 레몬을 소개하려고 오랜만에 펜을 들었어요. 저는 여름에는 페달 보트 렌털 사업을 하고 해변이 한산한 계절에는 아버지를 도와 레몬 농장을 돌본답니다. 저희 아버지 연세는 일흔일곱이세요. 아주 어릴 때부터 레몬 농사일을 해오셨지요. 지금은 제가 아버지를 도와 레몬 농사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바쁜 여름철에는 여전히 아버지 혼자 농사일을 거뜬히 해내세요. 아버지 말로는 몸에 좋은 레몬을 매일 드셔서 문제없으시대요.

이곳은 겨울에도 눈이 오는 일이 드물어요. 난방기구 있는 집이 드물다면 이해가 쉬울까요? 1월 한겨울에도 볕이 잘 드는 곳에는 새싹이 돋아납니다. 연중 따스한 기후 덕에 아말피의 레몬 나무는 거의 1년 내내 꽃을 피워요. 먼저 핀 꽃은 먼저 열매를 맺고, 나중에 핀 꽃은 나중에 열매를 맺지요. 3월과 7월에 얻는 레몬을 가장 상품으로 치지만 1년 내내 레몬 수확이 가능합니다. 한 나무에서도 그 해에 핀 꽃에서 난 작은 레몬과 한 해 전 꽃에서 얻은 노랗게 잘 익은 커다란 레몬을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레몬을 수확할 때는 작은 열매가 달린 가지가 다치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야 한답니다.

아말피 해안을 드라이브하시면 언제나 한쪽은 산을 다른 쪽은 바다를 볼 수 있어요. 아말피의 산은 바다로 내려와 끝이 납니다. 아말피 레몬도 아말피의 산이 생긴 모양을 따라 재배되고 있지요. 아말피, 아트라니, 체타라, 마이오리, 미노리, 포지타노, 라벨로, 비에트리 술 마레 등 아말피 해안을 따라 이어진 12개의 마을에서 레몬이 재배되고 있어요. 총 400헥타르 되는 면적에서 한 해 8000톤 정도가 생산되지요. 아말피 해안가 레몬 농장이 총 400헥타르라고 하지만 레몬 농장 하나하나는 다 자그마하답니다. 레몬 농지가 해안가 언덕 구릉을 따라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계로 무언가를 하는 건 불가능해요.

노령인 저희 아버지는 문제없다고 하시지만, 젊은 친구들에게도 레몬 농사일이 쉽지는 않답니다. 맛 좋은 아말피 레몬을 얻으려면 근력이 필요해요. 튼튼한 다리와 손이 없으면 레몬 농사는 어렵습니다. 레몬 나무를 받치는 밤나무 지지대도 다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고 교체합니다. 레몬 가지를 치거나, 그물을 치고, 레몬을 딸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지만 가끔은 서커스 단원처럼 레몬 나무 가지를 받치는 지지대에 올라가 아슬아슬 곡예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날으는 농부들CONTADINI VOLANTE'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레몬 나무는 마치 사람과 같아요. 병충해가 없으면 70~80년 이상은 살 수 있어요. 강한 나무가 있으면 약한 나무도 있지요. 약한 나무에서는 얻는 열매가 적지만 튼튼한 나무에서는 레몬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레몬 나무는 가지를 접어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키만 자라버리고 열매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밤나무로 지지대를 만들고 레몬 나무 가지를 지지대를 따라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아말피의 바람은 아주 강해요. 작은 열매나 꽃을 엄마 가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바람에 꽃이나 열매가 상하지요. 그래서 아기 가지는 엄마 가지를 따라야 해요. 바람이 아주 강한 철에는 그물로 가지와 꽃과 열매를 덮어서 강한 바람과 한기가 바로 닿지 않도록 합니다.

아말피산 레몬은 거의 일 년 내내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연중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레몬 나무의 특성도 있겠지만, 구릉과 계곡으로 이어진 구불구불한 아말피 지형이 레몬 수확기를 늘리는 일등 공신입니다. 저희 아버지 레몬 농장처럼 바다와 가까운 햇볕이 내내 잘 드는 곳에서는 레몬도 노랗게 빨리 익어가고, 해변과 멀어져 산 정상에 가깝거나 계곡에 위치해서 그늘이 오래 지는 곳의 레몬은 천천히 익습니다.

아말피 레몬은 마치 저처럼 날씬하지요. 다른 지역에서 나는 레몬이 둥글다면 아말피 레몬은 길쭉하고 끝이 더 뾰족합니다. 껍질은 적당히 두껍고, 색은 밝은 노란색을 띠어요. 풍부한 과즙에서는 적당히 신맛이 납니다. 무게는 레몬 한알 당 100그램에서 120그램 정도 되고 4개에서 10개 정도의 씨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하지요.

아말피 레몬은 저의 꿈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레몬 향기 속에서 일하면 고요 속의 평화를 얻습니다. 하하하. 참, 얼마 전부터 젊은 친구들이 레몬 투어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 친구들이 아말피를 찾아옵니다.

한국에서는 레몬을 주로 어떻게 사용하나요? 여기서는 신선한 레몬즙을 샐러드에 넣어 식초 대신 사용하거나 생선 구이를 할 때 올리브 오일, 잘게 썬 민트 잎, 다진 마늘, 매운 고추 조금에 레몬즙과 레몬 제스트를 잘 섞어 붓으로 생선 껍질 위에 잘 발라 갓 잡은 생선을 석쇠구이 해서 먹기도 하지요. 저희 집에 오시면 레몬즙을 넣은 샐러드와 레몬 생선 구이, 갓 튀긴 뜨거운 멸치 튀김 위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 대접할 텐데요. 아쉽지만 오늘 당장 저희 집으로 모실 수가 없으니 겨울에 즐길 수 있는 따끈한 리모나타와 식후주로 제격인 리몬첼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겨울철 건강을 챙겨줄 레몬즙과 레몬주 만들기

LIMONATA CALDA
리모나타 칼다

추운 겨울날 몸을 녹이거나 감기에 걸려
목이 아플 때 좋은 '리모나타 칼다'를 소개할게요.
레시피는 아주 간단합니다.



RECIPE

물 250ml
레몬 반쪽
꿀 1~2티스푼

만들기

① 레몬 반쪽은 즙을 짜주세요.
② 도자기 컵에 80°C로 데운 뜨거운 물과
레몬즙과 함께 넣어주세요.
③ 마지막으로 1~2티스푼 분량의 꿀을 넣어 잘 저어주면 완성!
리모나타 칼다 한 잔이면 가벼운 감기 기운 정도는
바로 날아갈 거예요.

※ 무더운 여름에는 물 대신 얼음물이나
시원한 탄산수로 리모나타 칼다를 만들어보세요.
더위를 잊을 수 있답니다.

LIMONCELLO
리몬첼로

리몬첼로는 아말피 지역의 식후주로 유명해요. 만드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좋은 리몬첼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RECIPE

레몬 10알
95°C 알코올 1L, 설탕 600g
물 1L

만들기

① 깨끗하게 소독한 유리병에 95°C 알코올 1L와 레몬껍질을 넣어
서늘하고 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서 보관해주세요.
② 일주일 후 레몬 껍질이 담긴 알코올을 걸러줍니다.
③ 물 1L와 설탕 600g을 끓여 설탕 시럽을 만들어주세요.
이때 시럽은 완전히 식혀줍니다.
④ 걸러낸 알코올과 차갑게 식은 설탕 시럽을
밀폐 유리병에 담고 서늘한 곳에서 30일가량 숙성시켜주면
리몬첼로 식후주가 완성됩니다.

여백과 공간을 채우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

빛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미술관들이 있다. 건축 자체가 또 하나의 훌륭한
전시 작품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빛의 영감을 선사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의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위치한 '루브르 아부다비'가 그 주인공이다.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찬란한 자연의 빛과 함께하는 두 곳의 미술관을 소개한다.

글. 권지혜(편집실) **사진 제공.**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Louvre Abu Dhabi ©Mohamed Somji

빛의 소나기가 쏟아지다

‘루브르 아부다비LOUVRE ABU DHABI’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7850개의 별빛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세워진 미술관 ‘루브르 아부다비’가 그 주인공이다. 2017년 11월 개관해 다음 달인 12월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SALVATOR MUNDI> 전시를 예고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한 미술관이다.

‘장 누벨JEAN NOUVEL’이 루브르 아부다비의 설계를 맡았으니 빛이 쏟아져 내리는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장 누벨은 현재 전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프랑스 건축가로,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첫 해외 별관인 루브르 아부다비의 설계를 맡았다. 장 누벨의 대표적인 작품은 파리의 아랍문화원, 바르셀로나의 아그바르 타워,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구스리 시어터, 파리의 케 브랑리 박물관, 파리의 카르티에 재단 등이 있다.

장 누벨의 건축에서 ‘빛’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루브르 아부다비도 마찬가지인데, 건물 전체가 야자수를 모티프로 한 돔 모양의 지붕으로 덮여 있다. 지붕에는 저마다 모양이 다른 7850개의 구멍을 뚫어 건물 내부로 들어오는 빛이 시시각각 변하도록 설계했다. 약 8천 개의 빛의 소나기가 내리는 장면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진기한 광경을 선사하고 루브르 아부다비를 찾는 많은 이들은 환상의 빛을 경험한다.

한편 장 누벨은 아부다비만이 가질 수 있는 중동의 색을 루브르 아부다비에 더했다. 아부다비를 비롯한 아랍문화권의 도시들에서는 ‘마슈라비야MASHRABIYA’라는 목조 격자 창살의 창문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신의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지 않는 이슬람 교리에 바탕한 것인데 이런 양식을 루브르 아부다비에 차용한 것이다. 루브르 아부다비의 지붕은 이슬람의 전통 건축양식 외에도 야자나무 잎이 짜여 있는 듯한 독특한 모양새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장 누벨은 “나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예술 마을’을 만들고 싶었다”며 “아랍 성지 메디나와 그리스 광장 아고라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공간을 떠올렸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삶과 예술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 설계했다”고 루브르 아부다비의 설계 배경을 설명했다.

루브르 아부다비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앞으로 30년간 최고의 박물관을 꼽으라면 ‘루브르 아부다비’일 것”이라고 극찬했다. 오랜 시간 끝에 완공된 루브르 아부다비는 환상의 빛으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으며 주목할 만한 미술관으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매일 같은 빛이지만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날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빛. 빛은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벨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뮤즈가 된다. 훌륭한 전시와 빛의 사색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루브르 아부다비는 많은 이들에게 로망이 되고 있다.



빛의 소나기가 쏟아지다
루브르 아부다비

Louvre Abu Dhabi ©Roland Halbe



자연광으로 전시를 감상하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Fernando Guerra, Openbooks

자연광으로 전시를 감상하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경기도 파주

조명은 최대한 배제하고 햇빛을 이용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미술관이 있다. 전시물이 가장 돋보여야 할 미술관에서는 조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보기 좋게 깨트린 곳이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이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모더니즘 건축의 마지막 거장'이라 불리는 포르투갈 건축가 알바로 시자ALVARO SIZA가 설계를 맡았다. 알바로 시자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황금사자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건축계의 거장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포르투 세할베스 현대 미술관, 아베이루대학교 도서관, 리스본 엑스포 파빌리온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비롯해 안양 알바루 시자 홀, 아모레퍼시픽 연구원을 설계했다.

부드러운 선과 자신만의 감성으로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해 '건축계의 시인'이라고도 불리는 알바로 시자.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그의 건축물답게 일반적인 사각 형태가 아닌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어진 건축으로 여유롭게 흐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초록빛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한층 모던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선사한다. 여유로운 곡선 외에도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다양한 곡면으로 이루어진 백색의 전시 공간에 인조광을 가급적 배제하고 자연광을 끌어들여 은은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람객들에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빛의 향연을 선물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계절별 전시 관람 시간도 달라지며 이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이 '빛으로 미술관MUSEUM WITH LIGHT'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연의 빛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던 알바로 시자와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의 기분 좋은 고민이 잘 드러난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단순한 전시 공간으로 방문객을 유혹하기보다는 건축 자체로 전시 이상의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덕분에 전시뿐만 아니라 건축물 그 자체를 보기 위해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알바로 시자가 설계한 브라질의 이베리 카르마구 재단 미술관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모을 것"이라는 포르투갈의 유명한 건축사진작가 페르난도 게하의 말처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개관 전부터 각종 해외 잡지 및 국내 건축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앞으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을 적극 소개해나갈 예정이다.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오는 자연의 빛과 함께 훌륭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다가오는 주말,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으로 즐거운 걸음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아폴론에서 대별왕까지 세계의 신화에서 '빛의 신'을 만나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본 자는 안다. 작은 가로등 불빛이 어찌나 고마운지. 남몰래 죄를 지어본 자는 안다. 태양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한낮의 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병마에 시달려본 자는 안다. 창가의 햇빛만큼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존재가 없음을. 오직 빛만이 이토록 다채롭고도 강렬한 힘을 발휘한다. 세계의 신화들은 당연히 그 빛에 특별한 신성을 부여했다. 그리하여 이러한 빛의 신들이 태어났다.

글. 이명석(문화비평가) **일러스트레이션.** 이철민

아폴론에서 발드르까지

눈부신 용모와 능력을 가진 천상의 신

에게 해와 아드리아 해를 잇는 운하에 자리 잡은 코린토스의 별명은 '빛의 도시'다. 여기에 아폴론의 신전이 있다. 특이하게도 그 신전은 가운데 천장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는데, 아폴론이 태양을 실은 황금 마차를 몰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했던 것이다.

빛의 신 아폴론은 그리스의 신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성품을 지니고 있다. 독재자에 바람둥이인 제우스, 분노조절장애의 포세이돈, 거짓말을 일삼는 헤르메스와 달리 도덕의 빛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제우스가 번개라는 빛을 심판과 공격의 무기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반면, 아폴론은 이 빛을 모든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리스인들은 아폴론이 무지라는 어둠과 싸웠다는 점을 특히 좋아했다.

시인 바이런은 아폴론을 두고 '인간의 사지를 가진 태양'이라 불렀다. 그 말은 감히 쳐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눈부신 미모를 가졌다는 뜻이기도 했다. 북유럽 신화에도 이에 못지않은 천상의 미남자가 나오는데, 역시 빛을 다루는 신인 발드르다. 그는 준수한 용모, 탁월한 지혜, 상냥한 성격을 갖추어 모든 신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발드르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하게 된다. 신들 중에서도 가장 선한 자이다. 누구나 그에게 찬사를 보낸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으니,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에도 등장하는 질투의 화신 로키였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호드를 꼬여 발드르를 죽게 만들었다. 빛의 신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세계는 붕괴했고 라그나로크라는 세기말의 대재앙이 닥쳤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혹독한 겨울을 겪어야 하는 북구의 공포를 잘 드러낸다.

빛의 신, 그 이중성

켈트 신화에서는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쌍둥이 아들로 태어나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며 세계의 운명을 뒤흔든다. 빛의 신인 루그는 투석기와 창을 잘 다루는 젊고 준수한 전사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면 몸이 변하여 미친 듯이 싸움을 벌였다고 한다. 한쪽 눈은 머릿속으로 들어가버리고 다른 쪽은 점점 커지는데, 이 무시무시한 눈으로 상대를 노려보면 몸이 마비된다. 하지만 평화가 돌아오면 누구보다 즐겁게 생활했고 다양한 기술로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빛의 이중성을 잘 드러내는 신이다.

태양은 세계의 모든 신화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아왔지만, 놀랍도록 정교한 태양 숭배 의식을 만들었던 이집트 파라오 왕조에 비할 곳은 없으리라. 이집트에는 여러 버전의 창조 신화가 있는데, 대체로 혼돈의 바다에서 벤벤이라는 언덕이 솟아오르고 여기에서 태양의 신 라가 태어났다고 한다. 그는 사람의 몸에 매의 얼굴을 하고 있고 코브라가 태양을 둘러싼 모양의 관을 쓰고 있다. 매일 태양의 돛단배를 타고 천상의 나일강인 은하수를 따라 항해한다. 그런데 서쪽 지평선 끝 은하수에는 거대한 독사가 있어 늘 싸워야 했는데, 만약 싸움에 져 잡아 먹히면 일식이 찾아온다고 한다. 하

지만 곧 다시 살아나 돌아오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집트의 왕은 스스로를 태양의 신이라 불렀고, 그가 머무는 성소인 헬리오폴리스를 빛의 도시로 삼았다.

고대 아스텍 사람들도 스스로를 '태양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생각했는데, 그 신화의 내용은 다소 잔혹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태양신 테스카틀리포마는 매일 아침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아스텍의 황제와 협정을 맺었다. "아스텍의 수도에서 가장 잘생긴 젊은이를 뽑아, 1년 동안 나의 화신인 것처럼 호사스럽게 살게 하라. 그 다음에 흑요석의 빛나는 칼로 청년의 심장을 꺼내 나에게 바쳐라." 빛의 신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물, 그러니까 청춘의 피였다.

혼란의 시대에서 빛과 어둠의 대결이 시작되다

"빛은 우리를 보지만 우리는 빛을 보지 못한다." 바빌로니아의 태양신 샤마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빛의 능력을 특화시켰다. 그는 어깨에서 빛이 솟아오르는 존재로 세상의 모든 현재를 볼 수 있고, 모든 미래를 알고 있다. 대홍수의 신화로 유명한 길가메시에게는 이런 운명의 경고를 내렸다. "길가메시여! 더 나아가지 말라. 네가 찾아 헤매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으로 불리는 고대의 율법서를 내려준 것도 그였다. 기원전 1700년대 바빌론에 세워진 이 돌기둥 위에는 샤마시가 왕에게 법전을 내려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이 신은 인간들의 재판 과정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았다. 만약 의협심이 강한 인간이 불의에 처하게 되면 그를 위해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었다.

우주의 역사를 빛과 어둠의 대결로 바라보는 이야기는 여러 전설에서 등장한다. 메소포타미아 전설에 나오는 빛의 신 마르두크는 질서와 혼돈, 선과 악이 맞서는 전투의 결과로 태어났다. 조로아스터교는 세상을 선과 빛의 신 아후라 마즈다와 악과 어둠의 신 아흐리만의 대결로 보았다. 만주족의 창조 신화이며 우리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신화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천궁대전>에도 비슷한 대결 구도가 나온다. 그런데 그 디테일이 매우 독특하다.

<천궁대전>에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결은 먼저 따뜻함과 추위, 불과 얼음이 맞싸우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다 결정적인 국면으로 넘어가 빛과 암흑이 싸우게 되는데, 여기에서 빛을 대표하는 마지막 전사로 고승도치 신이 등장한다. 그는 날카로운 가시로 악한 신의 눈을 찔러 결정적인 승리를 얻어낸다. 그런데 왜 하필 고승도치였을까? 사방으로 내뻗는 햇살이 고승도치의 가시 같아서였을까? 혹은 어두운 땅 밑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생명력, 태양을 보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 높이 샀던 때문일까?

우리 신화 속 다양한 빛의 신

우리 신화에도 당연히 빛을 상징하는 존재들이 나온다. 사로국의 6부 촌장들이 모여 있을 때 하늘에서 빛나는 말이 내려와 알을 낳았다. 그리고 그 알에서 한 동자가 태어났는데 그의 온몸에서 광채가 나자 해와 달까지 덩달아 더욱 밝아졌다. 그는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의 혁거세赫居世라는 이름을 얻었고, 신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

하늘에서 빛을 내는 존재들인 일월성신日月星辰을 숭배하는 이야기도 많다. 특이한 것은 우리 신화 속 존재들은 빛 자체를 상징하기보다는 빛을 내는 천체들을 컨트롤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별왕과 소별왕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까마득한 옛날, 세상은 시루떡처럼 하나로 붙어 있었다가 하늘과 땅이 갈라지며 만물이 생겨났다. 이때 큰 수탉이 울자 바닷속에서 거인이 솟아나왔는데, 머리 앞뒤로 눈이 둘씩 붙어 있었다. 이것이 두 개의 태양과 두 개의 달이 되는데, 세상에 빛이 넘쳐나니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천지왕과 총명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대별왕과 소별왕이 화살을 들고 이를 해결하러 갔다. 대별왕이 해 중 하나를 쏘자 빛을 잃고 새벽의 샛별이 되었다. 소별왕이 달 중 하나를 쏘자 저녁의 개밥바라기별이 되었다.

한반도의 사람들은 새해 첫 새벽에 동해 바다나 높은 산을 찾아가 처음 떠오르는 햇빛을 쬐며 마음의 각오를 다진다. 빛은 생명을 만들고, 진실을 밝히고, 불의를 단죄한다. 그 빛의 에너지를 각자의 마음속에 충전해두려는 것이다.



조명 디자인의 새로운 시대를 연 혁신과 사랑

태양이 지고 난 뒤에도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즐기기 위해 우리는 조명의 스위치를 올린다.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넘어 관습을 넘어서는 파격과 새로운 미래, 사랑의 가치를 전해주는 조명 예술의 마스터피스 작품 세 가지를 소개한다.

글. 허재훈(편집실)

밤은 감성의 시간이다. 분별과 차이를 덮는 어둠의 세례 덕분에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주장을 거두고 밤의 포옹에 안긴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밤과 어둠의 매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존재가 바로 조명이다. 작고 은은한 빛이 밤의 매력을 더욱 돋우고 우리는 공간을 채우는 그 빛 속에서 따뜻한 체온과 위로를 느낀다. 예술가의 영감이 탄생하고 자라나는 시공간 역시 '깊은 밤 조명 아래'다.

한편, 감성을 자극하는 조명의 이면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상징되는 '밤 지새우기'가 있다. 조명의 탄생으로 우리는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움직일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노곤한 피로감과 싸우며 늦은 밤을 지새우는 이들에게 조명은 위로보다는 생업의 무게이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엄혹한 현실이다.

감성이든 야근이든, 현대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밤의 동반자로 자리 잡은 조명. 많은 예술가들이 이 다채로운 역할과 이면의 매력을 지닌 대상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특히 조명 디자인의 세계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아티스트 3명이 있다. 건축가 출신의 디자이너, 베르너 팬톤과 빛의 마술사, 잉고 마우러 그리고 디자인 구루이자 영원한 현역 알레산드로 멘디니다.

이들 디자이너의 작품은 빛을 발하는 본연의 임무를 제외하면 재료와 표현, 구성이 모두 각별하고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제품과 영역을 넘나들며 구축한 개성을 바탕으로 완성한 조명은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작품이다. 색감과 디자인뿐만 아니다. 조명 디자인을 통해 아티스트들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 또한 남다르다. 조명 속에 담긴 빛보다 더 밝고 찬란한 정신은 이 겨울, 잠 못 드는 우리들을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안내해준다.



: FUTURE

미래에서 온 UFO
오늘의 세상을 밝히다

베르너 팬톤의
'브이피 글로브VP GLOBE'

베르너 팬톤하면 조명에 앞서 의자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건축가 출신의 덴마크 디자이너는 마치 UFO와도 같은 이색적인 디자인의 '브이피 글로브'를 통해 우주적 상상력을 선사한 조명 디자이너이기도 하다. 투명한 구형 커버 안에 대칭을 이루고 있는 부품이 그대로 들여다보이는 '브이피 글로브'는 천장에 달아놓으면 비행하는 듯 특이한 자태를 뽐내며 실내를 그대로 하나의 작은 우주로 만들어준다. 군더더기 없는 외형으로 심플함과 대칭적인 조형미를 추구한 그의 디자인은 세상에 선보인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래의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최상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2017 by TAGWERC



©라문코리아

: LOVE

사랑, 모든 디자인의
시작과 끝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아물레또AMULETO'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디자인 구루이자 영원한 현역, 알레산드로 멘디니. 그는 사랑이야말로 디자인의 정신임을 강조한다. 그의 대표적인 조명 디자인인 LED 스탠드, 아물레또는 세 개의 링과 2개의 지지대를 기본으로 각 파트의 색상과 투명도는 물론 조명까지 선택 가능한 맞춤형 조명의 상징이다. 멘디니는 책을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 이 조명을 디자인했다. 까다로운 광학 기준을 충족해 눈 건강을 지키면서 자유자재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아물레또.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아물레또는 오늘도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을 선사하며 그 깊은 사랑을 전하고 있다.

: EXCEPTION

자유와 파격이 빚어낸
조명 예술의 전설

잉고 마우러의
'포르카 미제리아PORCA MISERIA'

독일 남서부의 한적한 섬 라이헤나우에서 태어난 조명 디자이너, 잉고 마우러. '정돈과 실용'으로 상징되는 독일에서 그와 같이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추구한 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전 세계에 잉고 마우러만의 자유로움과 파격을 널리 알린 작품은 1994년 작, '포르카 미제리아'이다. 깨어진 접시 파편들이 사방으로 튕겨져 나가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 이 역동적인 작품은 당대의 관습과 기능중심주의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예술가의 영혼을 상징하는 듯하다.



동궁과 월지

잠들지 않는 도시, 경주 은은한 불빛들 사이를 달리다

누구에게나 친숙한 도시, 경주.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옛 이야기를 오늘에 전하는 지붕 없는 박물관, 살아 있는 교실로 사랑받아왔다. 낮과 밤 모두 색다른 매력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경주의 길을 누비며 그 속에서 숨 쉬고 있는 경주의 다양한 얼굴을 만나본다.

글. 허재훈(편집실) **사진.** 경주시청

달빛 어린 연못에서 즐기는 경주의 밤

겨울 경주 여행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서울이나 광주, 부산 어디에서 출발해도 몇 시간은 걸리지만 여유를 갖고 달려도 좋다. 진정한 경주의 매력은 밤에 한결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일상을 마무리한 사람들이 따뜻한 음식과 위로를 찾아 시장으로, 식당으로 들어서고 왕릉과 옛 건물에 따뜻한 조명이 깃들기 시작하면 움츠렸던 겨울 경주는 시나브로 온몸에 피가 도는 듯 얼굴빛이 곱게 상기된다. 이방인도 토박이인 듯 섞여들 수 있는 포근한 어둠은 덤이다.

밤을 맞은 경주의 멋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경주 동궁과 월지이다. 보통 우리에게 '안압지'로 알려져 있는 신라 왕궁의 별궁이다. 평소에는 신라의 왕자가 머물며 사는 동궁이었고 특별한 손님을 맞거나 나라의 경사가 있을 때는 연회가 열렸다. 오랫동안 불려온 이름, 안압지는 신라 폐망 이후 후대의 시인들이 '쓸쓸한 옛 터에 기러기와 오리만이 날아든다'고 노래하면서 붙게 되었다. 본래 이름은 월지, 달이 비치는 연못이다. 1980년대 월지라고 새겨진 토기 조각이 발견되면서 제 이름을 찾은 것이다.

겨울 동궁과 월지의 점등시간은 오후 6시다. 그 전에 도착해 경주의 낮과 밤이 교대하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도 경주 여행의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경주를 대표하는 야경 사진 대부분도 이곳 동궁과 월지를 배경으로 탄생했다. 동궁과 월지에 비친 달빛을 조명 삼아 일대를 산책하며 숨어 있는 나만의 앵글을 찾아보자.

동궁과 월지에서 10분 남짓 걸으면 만날 수 있는 첨성대 또한 밤의 자태가 남다르다. 특히 첨성대의 야경이 사랑받는 이유는 다양한 컬러로 그 빛을 달리하며 비추는 다채로운 조명 연출 덕분이다. 붉은빛에서 푸른빛으로 다시 보라에서 노랑으로 옷을 갈아입는 첨성대를 보면 마치 하나의 대상을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해낸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작품을 마주하는 듯하다. 별자리를 관측하던 천문대였던 첨성대가 스스로 땅 위의 별로 반짝이는 장관은 한동안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게 만드는 경주의 새로운 볼거리로 손색없다. 한편 첨성대와 가까운 곳에 훌륭한 야경을 볼 수 있는 월정교가 있다. 신라 고대 교량 건축의 백미로 꼽히는 월정교의 야경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역사에 남을 장면을 연출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보문관광단지 역시 야경과 주경 모두 계절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걸음하고 있다.

켜켜이 쌓인 이야기와 정신을 맛보다

포기할 수 없는 여행의 즐거움, 아니 여행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음식이다. 늦은 산책으로 허기가 느껴질 때, 경주의 다양한 맛과 거기 얽힌 사연들을 한곳에서 즐기고 싶다면 경주시 교촌안길에 자리한 요석궁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인근 100리 안에 굶어죽는 이가 없게 하라', '과거를 보되 벼슬은 진사 이상을 하지 마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등 가훈을 실천하며 산 최부잣집 터에 자리하고 있는 요석궁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조선시대 양반가 음식을 '경주 최부자 가정식'으로 재정립해 선보이고 있다. 존경받는 부자의 삶이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요석궁에서의 한 끼는 전통 반가의 상차림과 더불어 경주의 정신과 마주하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체험이 될 것이다.

한편, 요석궁 곁에는 경주 최부잣집의 가양주, 교동법주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제조장이 자리하고 있다. 제사를 모시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던 명문가의 술인 만큼 그 맛과 향의 깊이가 남다르다. 350년 전통의 교통법주 한 잔으로 언 몸을 녹이면 경주 여행의 첫날도 서서히 저문다.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 남산과 양동마을

발 닿는 곳이 명소고 유적이지만 그중에서도 한 곳을 꼽는다면 역시 경주 남산이다. 하루 일정을 모두 할애해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아쉬움이 남는다. 해발 500미터 남짓한 산은 그리 험하지 않은 코스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도 어렵지 않다. 경주를 일컬어 흔히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 또한 이 남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위봉과 금오봉의 두 봉우리가 중심이 되어 30개 남짓의 계곡과 70여 답사 코스가 촘촘하게 이어져 있다. 특히 남산의 능선과 골짜기에 두루 퍼져 있는 절터와 석불, 석탑은 '현세에 경주 땅


월정교


보문관광단지



01



02

에 불국토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신라인의 간절하고 깊은 염원을 실감하게 해준다. 깎아지른 듯 아찔한 암벽에서 속세를 유유히 내려다보고 있는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이나 온화한 미소로 관람객을 맞이하는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은 딱딱한 돌로 쪼아 만든 불상이라 믿기지 않을 만큼 자애롭고 편안한 위로를 선사해준다. 특히 용장사는 괴짜 천재이자 조선 3대 기인으로 꼽히는 매월당 김시습이 머물며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 <금오신화>를 집필한 곳으로 자녀들과 함께 방문해볼 만한 역사 속 장소이다.

경주의 전통 주거 양식과 생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경주시 강동면에 자리한 양동마을이 있다. 우리나라 민속마을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한다. 양동마을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건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부터다. 그 이전에는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방문하면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양동마을은 조선시대의 상류층 주택과 더불어 일반 민들이 살던 초가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경주는 새로운 내일을 꿈꾼다

여행지의 역사와 전통을 알고 싶다면 박물관을, 여행지의 생생한 오늘을 느껴보고 싶다면 시장에 가보면 된다. 경주시 금성로의 중앙야시장은 활기찬 경주의 일상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30곳 가까운 야식 매대에서 익어가는 음식의 향기를 즐기면서 걷다보면 어느새 양손 가득 묵직하게 쇼핑을 할 수밖에 없다. 야시장뿐 아니라 전통 시장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만큼 지역색 짙은 음식과 장거리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시간을 내보자.

최근 경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핫 플레이스는 황리단길이다. 옛 지번 주소상의 황남동, 도로명 주소로는 태종로 일대에 형성된 새로운 상가 거리를 일컫는다. 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황남빵이 동네를 대표하는 메뉴였다. 황리단길은 경주 특유의 한옥 건축을 뼈대로 하되 디저트와 경양식, 커피 등 젊은 입맛에 맞춘 메뉴와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맛집으로 꼽히는 가게들은 서울 중심가 못지않은 손님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사진관과 한복 대여점, 서점들은 빠르게 변해가는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느리고 예스러운 정겨움을 무기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신라 천년의 수도만으로 경주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오늘의 경주는 말하고 있다. 경주야말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역동적인 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존과 희망의 고장임을. 온고지신, 옛 경주와 새로운 얼굴의 경주 사이로 난 길을 달리며, 또 걸으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과 이야기들을 가슴에 담고 돌아오는 길. 경주는 변함없이 깊고 환한 빛을 발하며 이방인의 귀로를 배웅해준다.

01
경주 남산의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은 관람객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선사한다.

02
양동마을은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유명세를 떨쳤다.













주말과 연휴, 온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경주 힐링 여행지

①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은 문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이다. 경주문화엑스포공원에서는 전시, 영상,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상시 즐길 수 있다. 특히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화한 높이 82m의 '경주타워'는 신비로운 외관으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② 한국대중음악박물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며 주목받은 한국대중음악박물관 역시 관광 코스로 손꼽힌다.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이해하기에 좋다. 오디오, 대중음악, K-POP에 걸쳐 근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전시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③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는 곳 중 하나다.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기획, 상설 전시를 통하여 자동차의 역사, 문화적 변천 과정을 보여주며 자동차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창이 되고 있다.

④ 추억의 달동네

보문단지에서 불국사로 향하는 길에 '추억의 달동네'가 위치해 있다. 토함산 자락을 따라 그 옛날 어려운 시절의 동네 풍경을 꾸며놓았다. 점빵, 전파사, 국밥집, 복덕방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1970~80년대로 들어간 기분을 선사한다.

⑤ 경주버드파크

경주버드파크는 새, 화초 등 다양한 동식물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교육학습장이다. 조류에 대한 정보를 특별한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즐겁고 신비로운 배움의 장이 되고 있다.

⑥ 황남빵

황남빵은 맛과 전통을 3대째 이어가고 있는 경주시 지정 전통음식이다. 3대를 이어 맛을 계승하고 순수 국내산 팥을 사용하며 오랜 세월에 걸쳐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변하지 않는 맛과 진심이 사람들에게 꾸준히 전해지고 있다.

①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북 경주시 경감로 614 에밀레극장
070-4212-2699
www.cultureexpo.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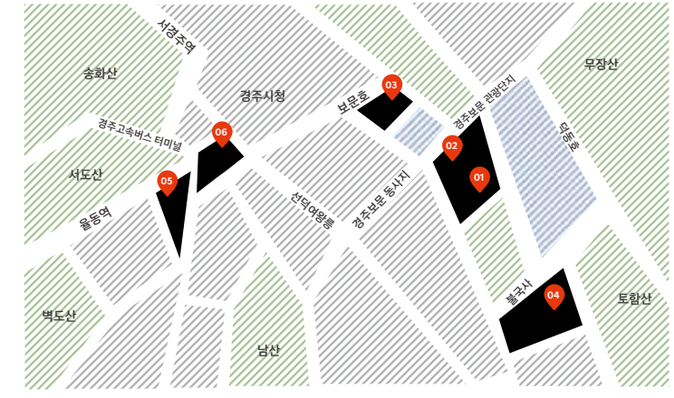
② 한국대중음악박물관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9
054-776-5502
www.kpopmuseum.com

③ 경주세계자동차박물관
경북 경주시 보문로 132-22
054-742-8900
www.gwam.modoo.at

④ 추억의 달동네
경북 경주시 보불로 216-8
054-748-5002
www.daldongnae.co.kr

⑤ 경주버드파크
경북 경주시 보문로 74-14
054-777-7200
www.birdparks.co.kr

⑥ 황남빵
경북 경주시 태종로 783
054-749-7000
www.hwangnam.co.kr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신남전기'의 남상철(좌), 신규빈 작가(우)

신나는 일상을 공유하다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신남전기'

일상의 즐거움을 빛으로 표현하는 이들이 있다.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신남전기'의 이야기다. 이들의 작업에는 공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 공연, 교육, 미디어 파사드 등 다양한 분야에 자신들만의 신선한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신규빈, 남상철 두 작가가 빛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신남전기를 만나 그들의 작품과 아이덴티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글. 권지혜(편집실) **사진.** 이승준, 신남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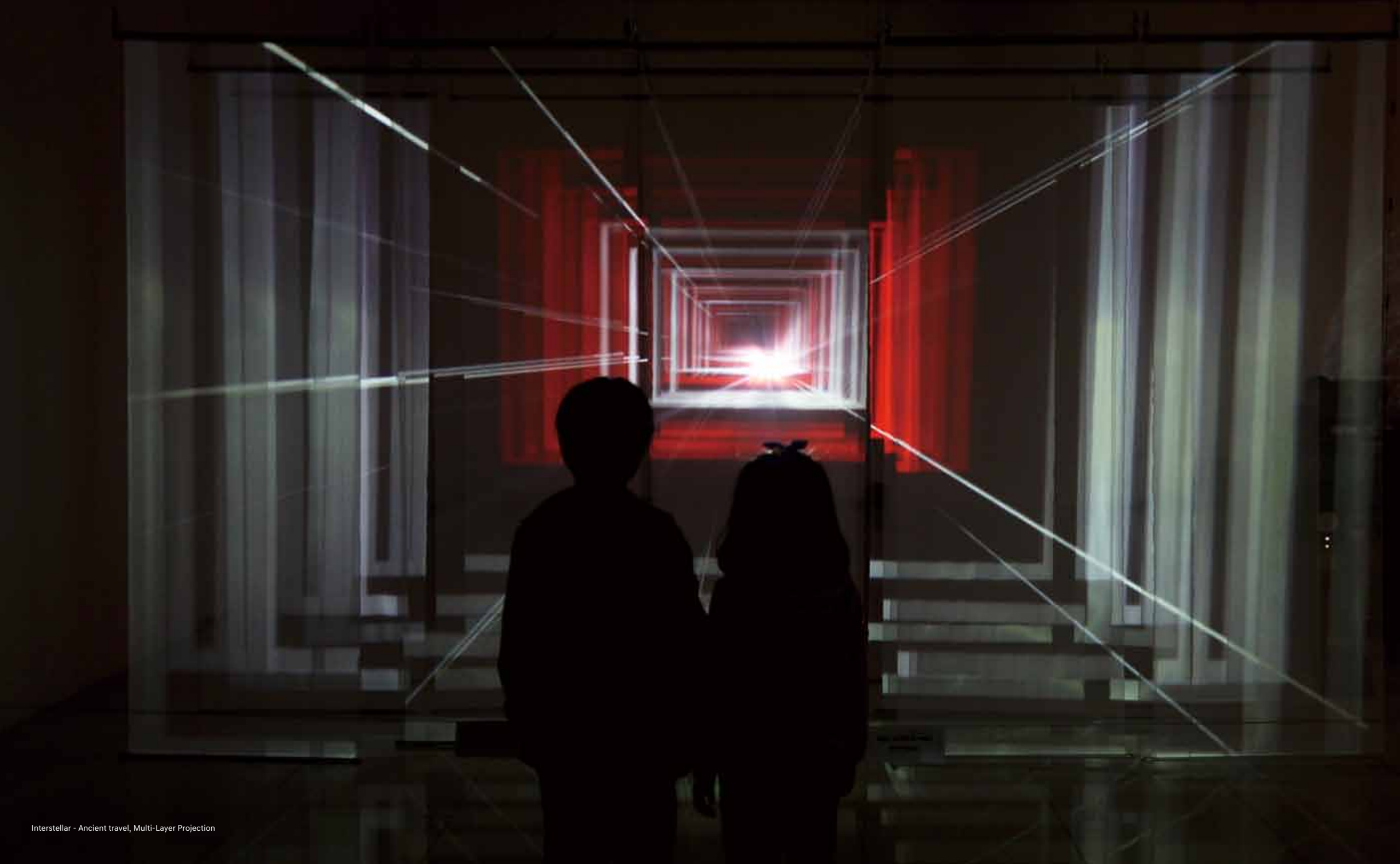
신남전기를 만나러 가는 길. 작업실이 있는 골목으로 들어서자 장바구니와 검은 비닐 봉지를 든 사람들이 지나간다. 작업실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골목은 시장을 이루고 사람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 나른한 오후의 시장 분위기와는 쉽게 조합이 되지 않는 신남전기의 작업실을 올려다본다. 특별하지 않은, 아니 지나치게 평범한 이 공간에서 어떻게 그처럼 재기발랄하고 화려한 작품들이 만들어질까. 끊임없는 의문을 떠올리며 신남전기의 작업실을 찾았다.

Q. 신남전기는 미디어 파사드, 전시, 공연, 교육 등 빛을 활용해서 수많은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신남전기의 작업에는 분야와 장소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규빈. 저희가 특정한 것을 정해두고 신남전기라는 팀을 결성한 건 아니에요. 단지 서로 해나가는 작업에서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무엇보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팀으로 작업을 하고 있죠. 일정 공간이나 장소, 특정한 분야에 한정하기보다는 관심이 가고 흥미가 있으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일단 재미있어야 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고 그만큼 신남전기로서 부끄럽지 않은 작품이 나오거든요. 이런 생각이 바탕이 되다보니 지금까지 LED나 미디어 파사드 등 빛을 활용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 두 분은 대학원에서 처음 만나셨다고요. 개성이 뚜렷한 두 분이 만나 팀을 이루기 까지 큰 결심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신. 각자 연구와 작업을 하던 둘이 만나 팀을 이루다 보니 초반에 부딪히는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Interstellar - Ancient travel, Multi-Layer Projection

거짓말이겠죠. 개성이 강한 두 사람이 만나다보니 스스로를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맞춘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서로 맞춰간다는 생각보다는 남 작가님(남상철)과 대화를 하고 일을 해나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일 들어가면 숨 쉴 틈도 없이 바쁘거든요. 또 둘뿐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과 생각에 빈틈이 생기면 일하는 게 무척 어려워지죠. 자연스럽게 작업에 대해 그리고 상대에 대해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Q. 신남전기의 모토는 '신나는 일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영감이 되기 위해서 작업 외의 일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 작업을 하면서는 무척 바쁘기 때문에 끝나면 정말 푹 쉬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작업이 모두 끝나고 여유로워지면 다시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책을 보고 하는 연구나 공부에 국한되지는 않아요. 하나의 작업, 프로젝트를 끝내고 비워진 만큼 다시 무언가를 채워 넣기 위해 전시도 보러 가고 음악도 듣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다음 작업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요즘은 전통에 관심이 많아서 얼마 전부터 전통 염색을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전통에 관심을 가지다보니 한국적인 것이 신남전기만의 스타일을 거쳐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고요. 일상의 관심사나 영감이 작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쉴 때도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다잡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렇게 지내다보면 순간 이거다 하고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음 작품의 소재가 되곤 하죠.

Q. 신남전기 이력 중 교육에 관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3년 동안 지속하셨는데요.

남. 저희가 처음 미디어 아트를 시작했을 때는 참고할 연구나 활동들이 없었어요. 궁금한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직접 연구하고 배워나가야 했죠. 연구에 매달렸던 시간들을 기억하면 황야에 서서 땅을 개척했다는 생각을 해요. 다음 세대들은 달라야죠. 저희의 어깨에서 시작해서 저희보다 더 유의미한 작업들을 이뤄나가길 바라고 있어요. 저희의 연구 과정을 지켜본 지인들은 어렵게 연구한 것을 전부 다 공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도 있지만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 거부감은 없어요.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알려주면서 오히려 저희도 시너지를 얻고 있거든요.

신. 꿈다락에서 함께 공부한 학생들이 같은 동료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 기술을 배우면 생각의 발전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보다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전반적으로 저 역시 남 작가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생각의 물꼬가 터지고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 생기기도 하죠. 저희가 일방적으로 배우는 입장이라기 보다 저희와 학생들은 서로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정교한 관계, architectural light design



Robosapiens Troy, Projection Mapping



미디어 마하니보, Hologram Mapping
박유진 작가와 신남전기의 컬래버레이션

Q. 다양한 교육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후배 양성 차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느끼는 책임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 책임이라기보다는 평소에도 신 작가님과 끝까지 미디어 아트라는 길을 걷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저희 말고도 주변에 비슷한 컬렉티브나 더 큰 스튜디오 또는 개인 작가님들이 계시는데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길인 건 분명해요. 저희가 만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미디어 아트라는 것이 좋아서 이 길로 들어선다고 해도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겠죠. 뒤이어 올 친구들을 위해 길을 닦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미디어 아트라는 길을 끝까지 걷는다는 자체가 모험이고 도전이지만 지속 가능한 팀이 되고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Q. 신남전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미디어 아트라는 한길을 걷는 것이 저희가 신남전기로서 이루고 싶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디테일하게는 저희를 표현할 수 있는 작업만 한다는 게 저희의 목표고 가치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신감 있는 신남전기를 유지하자는 거죠.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들어왔고 그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저희는 신남전기가 디자인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저희는 아무리 저희가 좋아하는 작가라고 한들 재현에 불과한 것은 지양하자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디자인한 신남전기의 아이덴티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작품이 저희가 추구하는 바고 목표죠. 저희의 생각이 백 퍼센트 반영될 수는 없지만 신남전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는 일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신남전기는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답게 다양한 빛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만의 색을 정의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신남전기를 '빛'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신. 신남전기만의 빛이라. 화려한 것보다는 오히려 점멸등이라 표현할 수 있겠네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사이키처럼 화려하기도 하지만 사실 빛이 모두 합쳐지면 흰색이고 빛이 없으면 흑색이잖아요. 저희의 작품이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받는 빛이라면 그 작품을 만든 저희는 사람들의 시선 밖에 있는 흑색이랄까요. 저희의 존재가 흑색이라고 해서 전혀 아쉬운 것은 없어요. 당연한 것이고 환하게 빛나는 저희의 작품과 누군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저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흑백의 관계, 점멸등이라고 표현할게요.

빛나는 작품 뒤에 언제나 이들이 있다. 생각과 행동에 빠듯한 규칙과 제약을 두기보다는 모든 문을 열어두고 더 많은 것에 시선을 맞추는 남상철, 신규빈 작가. 세상을 향해 열어둔 그들의 문을 통해 수없이 많은 빛이 쏟아진다. 일상에서 받은 영감으로 또다시 사람들에게 신나는 일상을 선물하고 있는 두 사람. 미디어 아티스트 그룹 '신남전기'의 더욱 빛나는 내일이 기다려진다.



헤드라이트의 빛은
어두운 상황에서도
가야 할 방향을 찾아주고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해줍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한 줄기 희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 곳곳에 숨어 있는
희망의 빛을 찾아 행복한 여정을 떠나보세요.



그랜저 IG

인상을 좌우하는 핵심 헤드라이트 디자인과 성능

자동차의 얼굴은 전면부, 즉 라디에이터그릴이 좌우한다. 그중에서도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파츠가 바로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디자인에 따라 모델의 인상과 이미지가 달라진다. 현대차와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종을 통해 헤드라이트 디자인과 성능을 살펴본다.

글. 이동희(자동차 칼럼니스트)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거운 IT 기기를 꼽으라면 아마도 아이폰X가 아닐까 싶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페이스ID로 불리는 얼굴인식 기능이다. 적외선으로 사용자 얼굴을 스캔해 약 3만 개에 달하는 지점을 기억해 핸드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기능을 활성화한다. 반응이 빠르고 주변에 빛이 없어도 인식이 가능해 생각보다 편리하다는 평이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본다'는 기능을 가진 눈은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한다. 특히나 얼굴에서 눈은 감정을 깊게 표현하는 부분이다. 영화 등에서 3D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진짜 사람과 비슷하게 보이려면 눈과 연결된 주변 근육의 미묘한 변화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얼굴 역할을 하는 전면 디자인에서 헤드라이트가 바로 눈이다.

헤드램프는 실제 기능적으로도 눈 역할을 한다. 어두운 밤 주변을 밝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내 위치를 다른 운전자에게 알려 안전에 도움을 준다. 여기에 브랜드마다 개성적인 헤드램프 디자인을 갖춰 아이덴티티를 드러내기도 한다. 등의 개수와 위치, 밝은 낮에도 내 위치를 주변에 알려 안전 운전에 도움을 주는 주간주행등의 모양에 따라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백열 전구나 고전압 방전 방식의 HID보다 수명이 길고 전기 소모량이 적어 연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LED[LIGHT EMITTING DIODE]가 쓰이기도 한다. 전기가 통하면 빛을 내는 일종의 반도체로 빛의 온도를 조절해 태양광에 가장 가깝게 만들 수 있어 야간 시야를 넓히는 것은 물론 눈이 편안한 장점이 있다. 또 LED는 전기가 통할 때 백열 전구



제네시스 EQ900

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불이 들어와 뒤에 오는 차에 내 의사를 전달하는 제동등에도 많이 쓰인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얼굴은 현대차의 그랜저다. 이번 세대에서 더욱 젊고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그랜저 IG'는 첨단 기술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모습은 클래식한 매력이 드러난다. 전통적인 과거 자동차처럼 하이빔과 로우빔으로 나뉘어 있던, 한쪽에 2개의 램프가 들어간 형상의 듀얼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기본으로 한다. 각각의 라이트 아래에는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 그랜저만의 눈빛을 만든다. 여기에 위 급 모델로 올라가면 풀 LED 헤드라이트가 달려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방향에 맞춰 라이트를 돌려 코너를 달릴 때 더 넓게 보여주는 기능도 추가된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중에, 가장 개성 강한 눈을 뽑으라면 '코나'를 떠올릴 사람이 많을 것이다. 2017년 6월 첫선을 보인 코나는 날카로운 눈썹 모양의 LED 주간주행등과 범퍼 가운데 붙은 헤드라이트, 아래쪽의 안개등까지 어느 자동차와도 닮지 않은 모습이다. 매년 판매가 급증하며 가장 뜨거운 시장인 컴팩트 SUV 중에서도 한껏 올려 붙은 라이트 디자인으로 판매 1위의 자리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차 최초로 쓰인 코나의 분리형 라이트는 앞으로 나올 현대차 SUV들의 얼굴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래를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프리미엄 대형 세단으로 가면 헤드라이트는 단순한 기능 이상의 역할을 하는데 '제네시스 EQ900'의 라이트가 그렇다. 가문의 문장을 나타내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크레스트 그릴은 좌우 끝까지 밀려난 헤드라이트 덕분에 더욱 돋보인다. 대형 세단의 품위를 위해 넓고 웅장한 앞모습을 위한 선택이다. 또 헤드라이트부터 테일램프까지 길게 이어진 측면 캐릭터 라인도 길고 크게 보여 권위를 세우려는 디자인 요소다. 여기에 들어간 어댑티브 풀 LED 헤드라이트는 주행 상황에 맞춰


제네시스 G70

빛을 비추는 패턴을 바꾼다. 좌우를 비추는 것은 물론이고 마주 오는 차와 앞에 가는 차를 감지해 자동으로 상향등을 작동해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한다. 가장 앞선 기술로 플래그십의 위상을 만드는 것이다. 범퍼 아래에 길게 뻗은 방향지시등은 플래그십 세단을 이어온 상징과도 같은 디자인이다.

제네시스 G70의 라이트는 의미가 남다르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중형 럭셔리 세단이라는 차의 성격도 그렇지만 라이트 안에 들어간 두 줄의 캐릭터 라인 때문이다. 2017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첫선을 보였던 브랜드 최초의 SUV GV80 콘셉트카를 떠올린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좌우 양쪽에 상하로 두 개씩 들어가는 쿼드 램프가 브랜드의 대표적인 기능이자 이미지가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그 미래가 들어간 것이 바로 지금 제네시스 G70의 헤드라이트다. 풀 LED라는 첨단 기능 바탕으로 그릴 상단과 라인을 맞춰 더 낮고 넓게 보이는 효과도 발휘한다.



코나

이렇게 모든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의미가 있다. 어릴 적 가족의 귀가를 기다리며 큰 길에 앉아 지나가는 차의 불빛만으로 차종을 맞히는 내기를 한 적은 없었는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차들이 도로를 달리지만 모두가 다르다. 하늘의 별자리를 구별하듯 기능과 개성으로 가득한 헤드라이트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CAR TALK

39세 싱글남의 두 번째 차, 해답은?

제네시스 G70 vs 2018 맥스크루즈

생애 두 번째 차 구입을 계획 중인 39세 싱글남이 도움을 청해왔다.
제네시스 G70과 2018 맥스크루즈 사이에서 고민 중인 그를 위해
자동차 전문가 두 명이 나섰다. 싱글남의 각 항목별 질문에 두 전문가는
저만의 논리로 주장하고 반박하며 답했다. 둘의 갑론을박은
두 차의 장점과 특징을 엿볼 기회. 과연 39세 싱글남,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은?

대담. 김기범(로드테스트 편집장), 박영웅(톱기어 한국판 편집장) **정리.** 김기범



Q. 세단과 SUV, 각각 장르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김기범 기자. 세단은 국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장르 중 하나죠. 세단이라는 용어는 '의자'를 뜻하는 남부 이탈리아 사투리에 뿌리를 뒀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오늘날 자동차 업계에서 세단은 3박스 스타일을 가리키죠. 엔진 품은 보닛과 승객이 타는 캐빈, 짐 싣는 트렁크까지 3가지 영역을 뚜렷이 구분한 형태죠. 최근 SUV의 인기가 치솟기는 했지만, 세단이야말로 자동차 장르의 고전이자 주류, 정석 아닐까요? 그런 만큼 어떤 용도로 써도 무난하게 잘 어울립니다. 또한, 시야의 높이나 운전감각 모두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또 편안하고요.



2018 맥스크루즈는 국내 SUV 가운데 독보적인 적재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박영웅 기자. SUV는 'Sports Utility Vehicle'의 줄임말이에요. 험로주파를 위한 네 바퀴 굴림 군용차에 뿌리를 뒀죠. 지상고를 높여 전천후 주행성을 강조한 왜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즘은 도로 사정이 좋아져서 두 바퀴 굴림 SUV도 많아요. SUV의 으뜸 장점은 역시 공간 활용성이죠. 뒷좌석을 접으면 자전거 몇 대는 손쉽게 실을 수 있어요. 관광버스 앞자리에 앉은 듯 탁 트인 시야도 SUV의 매력 가운데 하나예요. 요즘 SUV가 세계적으로 인기죠. 10년 사이 무려 3배 이상 판매가 늘었습니다. 현재 신차 3대 중 1대가 SUV예요.

"제네시스 G70의 디자인 슬로건은 '역동적인 우아함'이에요. 세단 형태지만 따분하지 않고, 날렵하지만 가벼워 보이지 않아요."

Q. 기왕이면 누가 봐도 예쁘다는 차를 타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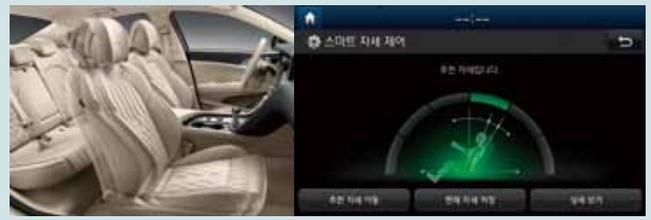
김. 디자인과 관련한 취향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잘생긴 차에 대한 반응은 큰 편차 없이 긍정적인 쪽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어요. 제네시스 G70이 그런 경우였어요. 제네시스 G70의 디자인 슬로건은 '역동적인 우아함'이에요. 세단 형태지만 따분하지 않고, 날렵하지만 가벼워 보이지 않아요. 예쁜 디테일만큼이나 비율도 근사해요. 게다가 아직까진 동급 수입차보다 오히려 희소성이 더 뛰어나기도 하고요.

박. 맥스크루즈에게 '예쁘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잘생긴 차죠. 7인승 SUV의 넉넉한 차체를 너무 튀거나 혹은 심심하지 않게 잘 매만졌어요. 현대차의 맏형 SUV답게 차별화된 존재감을 풍기죠. 특히 매끈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과 시원시원하게 치고 올라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긴 차체와 잘 어우러졌습니다. 다른 SUV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Q. 가끔은 누굴 태워야 하니 뒷좌석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김. 편안한 뒷좌석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승차감에 큰 비중을 둡니다. 제네시스 G70은 앞뒤 좌석 승차감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전 남는 공간보단 내 몸 닿는 부위의 형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네시스 G70의 천연가죽 씌운 프리미엄 퀼팅 시트는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일품입니다.

박. 맥스크루즈는 2+3+2 시트 구성의 7인승입니다. 또, 옵션으로 2열에 독립형 캡틴 시트를 단 2+2+2의 6인승을 선택할 수 있죠. 좌우 2열 좌석 사이에 통로가 있으니 3열 접근성도 한층 좋아요. 미니밴이 부럽지 않습니다. 특히 개구쟁이 조카가 있다면 3열에 앉혀보세요. 태블릿을 손에 쥐여주면 더욱 좋겠죠. 먼 길을 나서도 지루해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제네시스 G70은 인텔리전트 운전석 시트와 스마트 자세제어 시스템으로 운전자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다.

Q. 고를 수 있는 옵션은 어떤 차가 더 다양할까요?

김. 제네시스 G70은 동급 수입차보다 빵빵한 장비를 자랑합니다. 앞좌석 열선과 통풍, 뒷좌석 열선, 운전석 자세 메모리, 인텔리전트 운전석 시트, 동반석 허리받침 조절 등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장비를 몽땅 챙겼어요. 시야를 넓혀줄 어라운드 뷰 모니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잊지 않았죠. 천장을 스웨이드로 씌울 수 있고, 스피커 15개짜리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도 달 수 있어요. 사륜구동도 고를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박. 맥스크루즈는 현대차 SUV의 맏형답게 웬만한 장비를 다 갖췄어요. 2018년형 사양표를 살펴봤는데 2018년형 맥스크루즈는 애플 카플레이와 미러링크는 물론 블루링크를 선택할 경우 한층 똑똑한 음성인식 기술인 '카카오 i'도 쓸 수 있어요. 또한, 스마트센스 패키지 옵션을 달 수 있는 트림을 기본형까지 확장했어요.

"2018년형 맥스크루즈는 애플 카플레이와 미러링크는 물론 블루링크를 선택할 경우 한층 똑똑한 음성인식 기술인 '카카오 i'도 쓸 수 있어요."

Q. 짐 공간 활용성은 SUV의 압승이겠죠?

김. 전 선입견이라고 봐요. 싱글남의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하면 제네시스 G70의 짐 공간도 충분합니다. 495L로 동급에서 가장 넉넉해요. 게다가 뒷좌석을 6:4로 나눠 접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제네시스 G70을 2인승 밴으로 변신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아울러 세단만의 특징이라면 트렁크와 캐빈을 완벽하게 나눈 구조 아닐까요?

박. 맥스크루즈는 여유만만이에요. 3열 좌석만 접어도 국내 SUV 가운데 가장 넓은 적재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2열까지 접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케아에서 조립식 가구를 사도 바로 싣고 올 수 있지요. 싱글남일 때도 이래저래 실내가 넉넉한 차가 요긴하더라고요. 참, 맥스크루즈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를 갖췄어요. 차 뒤에 3초간 머물면 해치가 열리는 기능인데, 두 손 가득 짐을 들었을 때 정말 편리하답니다.

Q. 나는 소중하니까 안전한 차를 고르고 싶어요

김. 차는 똑똑할수록 안전합니다. 가령 제네시스 G70은 미리 설정한 상한속도 이내에서 앞차와 간격을 유지하며 주행합니다. 놀랍게도 운전대 조작도 필요 없습니다. 카메라로 차선을 읽어 알아서 조향까지 해주니까요. 물론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 하지만요. 또한, 전방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스스로 제동도 겁니다. 헤드램프는 운전대 꺾는 방향을 비추고, 밤엔 하이빔으로 달리다가도 다른 차를 감지하면 알아서 로빔으로 바꿉니다.


제네시스 G70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2018 맥스크루즈 차로 이탈 경고 기능

박. 2018년형 맥스크루즈는 스마트센스 패키지를 기본형부터 140만~230만 원에 옵션으로 달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운전자의 실수 감쌀 '똑똑이 기술' 묶음이죠. 전방충돌방지보조장치도 있고 후측방충돌경고, 차로 이탈 경고,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 다이내믹 밴딩 라이트, 스마트 하이빔 어시스트 등 제네시스 G70 수준의 안전장비를 모두 갖췄습니다. 스톱&고 기능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차선 벗어날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도 있죠.

Q. 성능은 어떤가요? 어떤 차 운전이 더 즐거울까요?

김. 제네시스 G70은 직렬 4기통 2.2L 디젤 터보 202마력, 직렬 4기통 2.0L 가솔린 터보 252마력, V6 3.3L 가솔린 터보 370마력 등 세 가지 엔진을 고를 수 있어요. 어떤 엔진을 고르든 농밀하고 쫀쫀한 운전재미를 느낄 수 있죠. 특히 3.3T의 0→시속 100㎞ 가속 시간은 4.7초로, 역대 국산차 가운데 가장 빨라요. 또한, 단단한 차체를 밑바탕 삼아 운전대 조작에 따른 차의 즉각적인 움직임을 구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한 번만 몰아봐도 알 수 있어요.

박. 자신의 운전 스타일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범한 운전 스타일이라면, 맥스크루즈 몰 때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일단 시야가 시원시원하죠. 나아가 넉넉한 최저지상고 덕분에 행동반경이 넓어집니다. 아스팔트와 험로를 거리낌 없이 넘나들 수 있다는 점이 맥스크루즈만의 매력이죠. 참고로, 맥스크루즈는 2.2L 디젤 터보 202마력과 3.3L 가솔린 자연흡기 290마력 엔진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Q. 출퇴근과 주말 레저를 모두 소화하려면 SUV가 답 아닐까요?

김. 세단 역시 일상용뿐만 아니라 레저까지 소화가 가능합니다. 제네시스 G70도 뒷좌석을 접으면 캠핑 장비도 거뜬히 삼킨다는 게 그 증거죠. 세단으로도 충분합니다. 걱정 마세요.



김기범 기자

<자동차생활> 기자를 시작으로 <스트라다> 기자를 거쳐 현재 자동차 전문 매거진인 <로드테스트> 편집장을 맡고있다. 또한 중앙일보 올해의 차 심사위원, 포털 네이버·다음의 자동차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박. 맥스크루즈는 '다목적운동화' 같은 차예요. 맥스크루즈와 함께하면 훨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합니다.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야외활동에 맥스크루즈는 어디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죠.

Q. 주유비는 누가 더 유리할까요?

김. 자동차의 무게는 효율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공기저항의 원인이 되는 덩치 또한 마찬가지고요. 같은 엔진일 경우 200㎏ 가까이 가벼운 제네시스 G70이 유리합니다.

박. 맥스크루즈는 연료탱크가 71L입니다. 자동차로 장거리 운전을 자주 하는 독일 사람들은 차를 구매할 때 연료 풀 탱크 때 주행 가능 거리도 챙기더군요. 맥스크루즈는 항속거리가 한층 넉넉하죠.

Q. 이 차를 안 사면 후회할 이유가 있다면요?

김. 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후발주자입니다. 그만큼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도 제네시스 G70은 선행 개발 기간이 기존보다 3배 이상 걸렸다고 해요. 고급차의 기준이 크기인 시절은 지났습니다. 꼭 필요한 공간에 최고의 사양을 갖춘 고급차야말로, 효율을 따지는 요즘 모범답안 아닐까요. 그래서 전 제네시스 G70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박. 맥스크루즈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두루두루 만족감을 줄 수 있는 SUV예요. 만약 한 대의 차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누리고 싶다면 맥스크루즈가 정답입니다. 게다가 2018년형으로 거듭나면서 상품성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네시스 G70의 내부


2018 맥스크루즈의 내부



박영웅 기자

<자동차생활> 기자를 시작으로 <스트라다> 매거진 편집장, <자동차생활>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탑기어 한국판> 편집장 및 XTM 탑기어 코리아 시즌7 MC를 맡으며 자동차 전문가로서 뚜렷한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다.

소통, 상생, 공유
현대자동차 고객과 더욱 가까워지다

현대자동차가 고객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예술 후원은 물론 고객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고객이 직접 자동차 개발에 참여하는 'H옴부즈맨'까지.
열린 마음으로 고객과의 소통에 힘쓰는 현대자동차의 발걸음이 친근하다.

정리. 권지혜(편집실)



01

현대차 예술을 만나다

현대차가 후원하는 <MMCA 현대차 시리즈>의 네 번째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MMCA 현대차 시리즈>는 현대차가 2014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진 작가의 개인전을 지원하는 장기 연례 프로젝트로 2014년 <이불>展, 2015년 <안규철>展, 2016년 <김수자>展을 개최했다. 현대차는 대중들의 예술 감상과 문화생활에 대한 문턱을 낮춰 한국 현대 미술의 저변을 넓히고 관람객들에게 새롭고 뜻깊은 경험을 전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MMCA 현대차 시리즈 2017: 임흥순 -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_믿음, 신념, 사랑, 배신, 증오, 공포, 유령>展으로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작가가 영상, 설치 등 총 1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는 대규모 개인전으로 4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속적인 현대 미술 지원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고객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자동차에서 진정한 삶의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고객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H-옴부즈맨 프로그램, 쏘나타 커스텀 핏을 만들다



쏘나타 커스텀 핏은 현대차의 'H-옴부즈맨'을 통해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개발된 차다. 'H-옴부즈맨'은 현대차가 제품, 서비스, 마케팅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해 고객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만들어가는 고객 소통 프로그램이다. 자동차 상품기획 현장에 고객이 직접 참석해 차량 핵심 부품과 트림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해당 아이디어가 채택돼 실제 판매되는 차가 만들어진 것은 매우 드문 일로, 국내에서는 첫 시도다. 현대차는 국내 최초로 트림 개발부터 출시까지 고객과 함께 만든 특별한 차인 '쏘나타 커스텀 핏'을 차량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번 전달식의 의미를 더했다.

현대차는 'H-옴부즈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고객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고객 만족에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고객과의 거리를 좁혀나가기 위해 누구보다 고객과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현대차의 행보가 주목된다.



02

현대차, 변하지 않는 가치를 이야기하다



현대차만의 고유한 유산을 전하는 '헤리티지 라이브HERITAGE LIVE' 2회 차가 뜨거운 반응과 함께 마무리됐다. '헤리티지 라이브' 토크 콘서트는 지난 시간 동안 축적해온 현대차만의 고유한 자산을 전시하고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고객들과 소통하는 행사로 2017년 2회에 걸쳐 진행되며 현대차만의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회 차 행사는 고급 승용차를 주제로 '포드20M', '그라나다', '그랜저 1세대' 차량 등을 전시하며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어 진행된 2회 차 '헤리티지 라이브' 토크 콘서트에서는 스포츠 쿠페를 주제로, 현대차가 출시한 역대 스포츠카 모델 및 모터스포츠 스토리가 소개됐다. '스쿠프', '티뷰론', '투스카니' 등이 전시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 참가자는 "당시 500대 한정 생산으로 판매됐던 알루미늄 차체의 '티뷰론'을 이곳에서 보게 돼 정말 흥미로웠다"라며 "모터스포츠에 관심이 많은데 WRC 및 N브랜드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라고 전했다. 고객들과의 따뜻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소통을 중요시하는 현대차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01
현대차가 후원하는 <MMCA 현대차 시리즈> 임흥순 작가의 전시 전경

02
쏘나타 커스텀 핏은 현대차의 고객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H-옴부즈맨'을 통해 개발됐다.

더 뉴THE NEW 그랜드 스타렉스 출시

현대자동차는 그랜드 스타렉스의 전면부 디자인을 신차급으로 변경해 9인승 모델을 추가하고 강화된 유로6 기준을 맞춘 '더 뉴THE NEW 그랜드 스타렉스'를 출시했다.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의 전면부는 대형 캐스케이딩 그릴, 그릴과 조화롭게 연결된 가로형 레이아웃의 헤드램프 등으로 강인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췄다. 특히 기존보다 높게 설계된 후드는 충돌 시 보행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줄임과 동시에 웅장한 느낌을 선사한다.

현대자동차는 비즈니스, 레저, 패밀리 등 차량을 다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니즈를 반영, 왜건(11·12인승), 밴(3·5인승) 등 기존 그랜드 스타렉스 라인업에 9인승 승용 모델을 추가하고 '어반URBAN'이라는 별도 명칭으로 운영한다. 또한 어반에 개선된 서스펜션을 기본 탑재해 승차감을 높였으며, 17인치 알로이 휠과 에어로 타입 와이퍼, 가죽 스티어링 휠 및 변속기 노브, 전좌석 3점식 시트벨트 등을 기본 적용해 고급감을 높였다. 이어 9인승 어반과 11·12인승 왜건의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줄여 오는 2018년부터 강화될 유로6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현대 바디케어 서비스' 실시

현대자동차가 전 차종에 대해 신차 구매 시 제공받은 포인트로 차량 외관 손상을 수리받을 수 있는 '현대 바디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 바디케어 서비스는 차량 구매 시 제공받은 포인트로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보장 기간 내 차량 외관이 손상되면 수리받을 수 있는 선택형 서비스로, 가입자가 차종에 따라 구매 후 1년 이내(출고일 기준)/주행거리 2만 km 미만일 경우(두 조건 모두 충족) 최대 3회까지 자기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이다.(※소형 100만 원, 중형 120만 원 한도 내, 차대차 사고 해당 안 됨)

현대 바디케어 서비스는 기본 보장 상품인 바디케어 베이직과 재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디케어 플러스, 바디케어 패키지의 총 3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현대 바디케어 서비스의 보장 범위는 차량 외부 스크래치에 대한 판금·도색 작업, 사이드 미러 파손 시 교체, 차체 하부의 파손 수리 등이 해당하며, 서비스 가입 고객은 차량 외관 손상 시 직영 서비스센터 또는 블루핸즈 영업점을 방문하면 보상 한도 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점·대리점에 문의하면 된다.

즐거운 소식은 계속됩니다

환한 빛으로 맞이한 이 시간, 행복하셨나요?
여러분의 일상에 밝은 영감과 기쁨을 선사한 이야기들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를 보다 특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의 희망은 더욱 커져 내일을 환히 밝힙니다.
곧 다가올 희망의 계절,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움트는 씨앗처럼 즐거운 소식도
마음 가득 차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 어반 출시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살린 브라운 인테리어
플로팅 내비게이션과 USB 충전기 등 업그레이드된 편의사양
착좌감이 개선된 9인승만의 편안한 시트

HYUNDAI

bluehands
차량관리 서비스는 blue hands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원혜택 : 블루점검 케어서비스/긴급출동/블루포인트/견인서비스

■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 서비스 080-6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스타렉스 9인승 왜건 2.5디젤(2WD): 복합 9.4km/ℓ(도심: 8.4km/ℓ, 고속도로: 11.0km/ℓ) | CO_2배출량: 210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2,320kg | 자동 5단(4등급)▶스타렉스 9인승 왜건 2.5디젤(4WD): 복합 8.9km/ℓ(도심: 8.0km/ℓ, 고속도로: 10.3km/ℓ) | CO_2배출량: 220g/km | 배기량: 2,497cc | 공차중량: 2,430kg | 자동 5단(5등급)■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맙시다. ■정속주행을 합시다. ■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